김현미 장관 “집 걱정 없는 청년들이 곧 국가의 미래”

18일 기숙사형 청년주택 1호 집들이 참석 후 주거복지협의체서 국민체감 주거복지 정책 당부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(월) 오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함께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‘1호 기숙사형 청년주택’에 방문하여 올 3월 기숙사에 첫 입주한 대학생들과 만남을 가졌다.
-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에게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을 매입·임차하여 기숙사로 운영하는 사업이다.
 - 이번 1호 기숙사는 국토부·교육부 간 협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을 맡았다.
 - * 단지형 다세대주택 4개동 39호실(총 145명 수용), 월평균 기숙사비 23만원 수준
- 김 장관은 기숙사에 입주한 학생들을 만나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면서, “집 걱정 없는 청년들이 활기차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자 미래”라면서,
 - “청년들이 집 걱정으로 인해 꿈을 접지 않도록 청년 주거복지 정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봉동 청년주택 입주행사 이후 인근의 오류동 행복주택으로 이동하여 주거복지 정책추진 관련 공공기관 CEO들과 함께 제4차 주거복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.

* (참석) LH, HUG, 한국감정원, 주택관리공단, SH, 경기도시공사

○ 이번 회의에서는 '17년 12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이후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의 이행상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, 기관별 '19년 주거복지 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.

□ 김 장관은 “오늘 방문했던 개봉동 청년주택과 같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”면서,

○ “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기반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해달라”고 당부했다.

2019. 3. 18.

국토교통부 대변인